

5.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복지사업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1950년에 발발한 6.25전쟁으로 인해서 생겨난 고아들을 돌보는 일은 선교사들에게뿐 아니라, 내국인 사역자들에게도 지상의 과제가 되어버렸다. 이에 전쟁 중에 또는 전후에 입국한 선교사들은 내국인 사역자들과 함께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보육과 복지사업에 뛰어들었다. 일제말엽과 해방직후에 존 T. 채이스는, 보육 사업은 아니었을지라도, 극빈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호물자 공급에 힘을 기우렸다. 자신이 미국에 머무는 동안에는 최상현 목사와 성낙소 목사가 구호물품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또 미국의 성도와 교회들이 그들에게 바로 구호물품을 보낼 수 있도록 그들의 주소를 자신의 선교지, <한국인 전령>(The Korean Messenger)에 공개하였다.¹⁾

중공군의 개입으로 재차 일본으로 피신했던 힐 요한은 1951년 6월 18일 입국하여 부산에 2주간 체류하는 동안 내국인 사역자들을 찾아내 6월 24일과 7월 1일에 나무아래에서 예배를 드렸다. 힐은 부산에서 보육원을 시작하려고 했으나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로부터 서울서 시작하라는 권유를 받고 상경을 결심하였다. 힐은 부산을 떠나기 전에 큰 천막을 구입하여 내국인 사역자들에게 주어 그들의 거처와 예배장소로 삼게 한 후에 최춘선, 성수경과 함께 부산을 출발한지 이틀 만인 7월 5일 서울에 도착하여 8월 4일 송월동 선교부에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Christian Mission Orphanage)을 설립하였다. 이 무렵 전쟁으로 인한 고아들은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후 힐은 장소문제로 보육원을 부평으로 옮겼고, 자신의 사역을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에게 넘기고 1955년 7월 5일 한국을 떠

1) "We Are Doing What We Can," *The Korean Messenger*, December 1947, p. 4.

날 때까지 부평 선교부 보육원, 이종만 목사가 1952년 8월 1일 설립한 인천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 1950년대 초에 설립된 대전 판암동 애생원, 1952년에 설립된 대구 배성보육원의 설립과 유지에 도움을 주었다.²⁾

1955년 11월에 입국하여 존 T. 채이스와 힐 요한 선교사가 하던 선교 사업을 이어받은 해롤드 테일러는 부평보육원의 운영경비 모두를 책임졌고, 대전 애생원도 직접 관리하였다. 애생원과 인천 보육원의 경우 학비, 책값, 기성회비 등을 후원하였다. 하지만 부평보육원을 제외한, 이들 보육원들의 경우, 재원부족으로 선교부가 전적인 책임을 질 수가 없어서 월드비전의 도움을 받도록 주선하였다.

힐 요한은 재입국한 1959년 이후에도 1959년 3월에 홍경채(홍응수)가 설립한 부산 성광원, 노봉옥 장로가 1959년 10월 15일에 설립한 논산(연무) 에덴보육원, 인천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에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보냈다. 또 자신의 맏딸 버지니아가 대전 선교부에 1968년에 설립한 보육원(Taejon Christian Orphanage)을 직접 관리하였다. 이밖에도 1950년대 전반기에 충남 부여군 합송리교회에 구애보육원과³⁾ 1966년에 최윤권 목사가 서울 도원동에 세운 지온보육원이 있었다.⁴⁾

선교사들이 전쟁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행한 사역들은 다음과

2) John J. Hill, "John Hill Returns to Korea; Resumes Evangelistic Work," *Christian Standard*, 4 August 1951, p. 483; "Korean Officials Make Change in Orphanage Regulations," *Christian Standard*, 15 September 1951, p. 581; "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 <썰메론 제7호>(한국성서신학교, 1972). 참고: 노봉옥 편저,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재단법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유지재단, 2006); 조동호, <힐 요한 선교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1), pp. 71-82.

3) John J. Hill, "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

4) 최윤권, <내가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환원출판사, 2003년 수정증보판), p. 63.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보육원을 세워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하였다.

둘째, 내국인들의 보육원 설립과 유지에 도움을 주었다. 이 경우 운영비, 학비, 책값, 기성회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후원하였다.

셋째, 고아들의 미국 입양에 힘썼다.

넷째, 구호물자를 지원하였다. 힐이 쓴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에 의하면, 도날드 캠프스라는 공군병사가 송월동 선교부의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을 방문한 직후, 관련 기사를 써서 <미네아폴리스 스타>지에 기고하였고, 그의 기사가 신문에 실린 후, 미국 전역의 교회들과 기관들 또는 시민들로부터 원생들을 위한 헌옷과 새 옷 보따리 1천개 이상이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힐은 이들 보따리를 선교부 건물 3층 넓은 다락에 쌓아두고, 틈틈이 분류하여 보육원들에 보내주었다. 또 성인용 의류들인 경우,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목회자들과 교인들에게 나눠주었다. 힐이 한국을 떠난 1955년 말에는 테일러가 남은 옷 보따리를 물려받아 처리하였다. 테일러는 보육원들에 보낼 헌옷들을 1956년 여름부터 일 년에 두 차례 10월과 4월에 보내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형제들에게도 이 시기에 맞춰서 구호물품을 보내줄 것을 매년 요청하였다. 10월에는 보내줘야 보육원들이 겨울채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⁵⁾ 테일러는 이 옷들을 수선할 재봉틀도 보내 줄 것을 미국 교회들에 요청하였는데, 원생들의 숫자만큼 수선해야할 옷이 많다보니까 재봉틀의 수명이 짧았던 것이다.⁶⁾

다섯째,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다른 무엇보다도 원생들의 신앙교육에 있었다. 테일러는 이들 보육원생들에게 매주 1회 예배와 연 2회 성경학교를 개최하여 신앙인으로 성장

5) "Clothing," *For Christ in Korea*, June 1957, p. 1.

6) "Needed: A Sewing Machine," *For Christ in Korea*, October 1961, p. 4.

할 수 있도록 도왔다.⁷⁾ 이로 인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만 18세가 되어 퇴원하는 원생들 중에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있었다. 실제로 서울성서신학교에는 보육원 출신의 신학생들이 여러 명 있었다.⁸⁾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일지를 살펴보면, 김은석은 구애보육원, 대전 판암동 애생원, 부평보육원, 인천보육원 등을 방문 설교하였고, 종종 부흥집회도 인도하였다.⁹⁾

1) 부평보육원

부평보육원은 힐 요한 선교사가 송월동 선교부에서 1951년 8월 4일 시작한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으로써 리라 톰슨(Lila Thompson Hiller)이 부지매입과 건축을 책임지고 부평으로 옮긴 것이어서 기독교회선교부가 모든 살림을 책임졌다.



부평 보육원(1957년)

송월동 선교부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은 19명의 고아들로 시작하였는데, 곧이어 수용 인원이 크게 늘어났다. 이에 힐은 성낙소 목사의 아들이었던 성수경과 최윤권 목사의 누이를 불러 돕도록 하였고, 나중에 대전 판암동 고

아원의 총무가 된 박중현, 낸시홍, 안나, 안 여사, 김동수, 한길자, 요리사 신 여사 등이 동역하였다.

이 무렵 1953년에 리라 톰슨(Lila Thompson, 1953-56)과

7) "These Little Ones," *For Christ in Korea*, May 1959, p. 3.

8) "All About Orphans," *For Christ in Korea*, May 1960, p. 4.

9) 조동호,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0), pp. 103, 124-125, 166.

1954년 메리 반힐(Mary Barnhill, 1954-55)이 입국하여 선교부가 운영하는 보육원들을 위해 헌신하였다. 특히 리라 톰슨은 보육원을 부평으로 옮긴 후 1956년까지 그곳에서 먹고 자며 헌신하였다.¹⁰⁾ 톰슨은 미군 중사 히람 힐러(Hiram Hiller)와 1955년 10월에 결혼한 후 1956년 3월에 미국으로 돌아갔다. 2016년 평택이전을 앞둔 부평미군기지의 미군 병사들은 1950-60년대에 인천, 부평, 부천에 세워진 보육원 원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테일러에 의하면, 1958년 10월에 부평보육원의 원생들이 원장에 반대하여 데모를 일으켰고, 그 수습책으로 설하운 목사가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설하운은 이 보육원을 도내 최고 보육시설 가운데 한 곳이라는 평가를 받아냈다.¹¹⁾ 설하운은 신학생 때 선교부신학교 관리과장으로 섬겼고, 구호의류를 보육원들과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업무를 관장하였으며, 1957년 3월 서울성서신학교 졸업 후 도원동교회를 시무하던 중 부평보육원 원장 및 부평 그리스도의 교회 담임자로 취임하였다.

2) 부여 합송리교회 구애보육원

선교사들이 합송리교회의 구애보육원을 후원했거나 방문했다는 기록은 없으나,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일지를 살펴보면, 충남 부여군 합송리교회에 구애보육원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김은석은 구애보육원 원아실과 식당에서 1954년 3월 29일과 1955년 2월 17-18일(박근영군과 김순식 자매 결혼식 주례)에 각각 성서를 통독하였다. 김광수 목사(장로)가 1954년 8월 7일 합송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임하여 1956년 12월 30일까지 섬겼으므로 구애보육원은 이신 목사가 시무하고 있을 때 이곳 피난민촌에 세워졌던 것으로 추정된다.¹²⁾ 할 요한 선교사의 글과

10) John J. Hill, "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

11) "These Little Ones," *For Christ in Korea*, May 1959, p. 3.

주소록에 합송리교회와 구애보육원에 대한 언급이 없고, 김은석 목사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이곳이 교역자 회 소속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3) 대전 판암동 애생원



대전 판암동 애생원(1960년대)

대전 판암동 그리스도의 교회의 애생원은 1950년대 초 설립되었다.¹³⁾ 설립 후 1958년까지 송조순이 원장으로 섬겼다. 이후 박중현이 테일러 선교사의 초빙으로 원장에 취임하였다. 힐 요한에

의하면, 메리 반힐(Mary Barnhill, 1954-55) 선교사가 1954년에 입국하여 애생원에서 먹고 자며 헌신하였다. 그녀는 이곳 애생원에서 전염성 간염에 걸렸고, 송월동 선교부에서 요양하였다. 리라 톰슨이 부평보육원에서 돌아와 반힐을 간호하였는데, 그녀도 간염에 전염되고 말았다. 이 불행한 일로 반힐은 1955년에 출국하였고, 그해 선교부의 일을 돕기 위해 일본에서 건너온 제인 키넬트(Jane Kinnett, 1955)도 반힐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갔다.¹⁴⁾

1955년 말에 기독교회선교부를 인수받은 테일러 선교사는 이신 목사와 함께 1956년 1월 27일(금)일 애생원을 방문하여 설교하였고,¹⁵⁾ 1958년 5월 18일 주일에도 애생원을 방문하여

12) 조동호,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 pp. 63, 85.

13) 조동호,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 pp. 103, 124-125, 166.

14) John J. Hill, "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

설교하였다.¹⁶⁾ 성경통독일지를 살펴보면, 1950년대 기간에 김은석 목사는 애생원을 종종 방문하여 예배와 부흥집회 때 설교하였다.

애생원은 기독교회선교부가 직접 관리하는 보육원이었다. 1958년 12월에 애생원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 일간지에 기사화가 되고, 법적문제로까지 번졌다. 이에 테일러 선교사는 그 해결책으로 전에 부평보육원에서 총무로 일하다가 일이 힘들어서 사임하고, 서울에서 전에 했던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던 박정훈 형제를 불러 원장에 취임시켰다. 테일러가 1960년 1월 11일에 애생원을 다시 찾았을 때, 애생원은 월드비전의 도움으로 건물에 대한 담보권이 풀렸고, 새로운 이사진, 새로운 원장과 새 이름을 갖게 되어 마치 새로운 장소 같았다고 전하였다.¹⁷⁾

4) 인천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



인천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1955년)

인천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은 1952년 8월 1일 이종만 목사에 의해서 인천시 남구 학익동 377번지에서 시작되어 1954년 10월 15일 '인천보육원'이란 이름으로 경

기도에서 시설설립인가와 1958년 1월 21일 사회복지법인 인천보육원 인가를 각각 받았다. 이후 인천보육원은 1976년 현재의

15) "To the Far Corners," *For Christ in Korea*, June 1956, p. 2.

16) "Daily Doings," *For Christ in Korea*, August 1958, p. 2.

17) "These Little Ones," *For Christ in Korea*, May 1959, p. 3;
"Taejon Orphanage," *For Christ in Korea*, February 1960, p. 4.

자리인 인천시 학익동 99-1번지로 이전하였고, 1980년 10월 13일 김영길 이사장에게 무상 양도되었으며, 동년 12월 31일 김영길 원장이 취임하였다.¹⁸⁾

힐 요한 선교사에 의하면, 이종만은 힐이 선교부에 보육원을 시작한 이듬해에 힐을 찾아가 인천에 보육원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종만은 그 무렵 이미 500명이 넘는 고아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낡은 2층 학교건물(현 인하대학교 운동장)에 수용한 상태였다. 힐 선교사가 은퇴한 1972년에는 90여명의 원생이 인천보육원에서 생활하였다.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일지를 살펴보면, 김은석은 1957년 한 해 동안에만 이종만 목사가 운영하는 인천 학익동의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에 대해서 두 차례 이상 언급하였고, 1957년 3월 23-24일(토-일) “오양균, 김규제, 김규성, 삼 아(兒)를 인천 학익동 이종만 보육원에 입원 차” 방문하였다.¹⁹⁾

이종만 목사는 이 보육원뿐 아니라, 송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한 1950-70년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산 증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종만은 힐 요한 선교사가 세운 한국성서신학교의 이사를 오랜 기간 역임하였고, 1964년 8월 26일 조직된 대한기독교신학교 설립협의회(Korea Christian College Planning Association) 위원의 한 사람이었으며, 교단의 중진이었다. 이종만 목사는 1970년대 말에 미국에 이민하여 한인교회를 담임하였다.

이종만 목사가 인천보육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후임을 모색할 당시, 인천시 담당교육원이 타 보육원의 총무로 있던 김영길의 청렴성, 정직성, 운영능력을 보고 인천보육원의 인수를 건의하였다. 그러나 당시 김영길 총무는 보육원을 인수할 자금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만은 김영길 총무의 성품과 능력을 인정하여 1980년 10월 13일 인천보육원을 무상양

18) 사회복지법인 일현 인천보육원 및 관련기사(인터넷 홈페이지).

19) 조동호,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 p. 142.

도 하였고, 김영길은 동년 12월 31일 원장에 취임하였다.

원장취임 후 김영길은 과거 외국의 원조와 후원활동에 의존하던 경영 기법을 탈피하고자 1984년 9월 28일 인천후원회, 1993년 1월 19일 서울후원회, 1994년 11월 1일 개별후원회를 각각 발족하였고, 1500여명의 후원회로 발전되었다. 이를 계기로 보육원의 의식주에 대한 지원이 점차 교육, 건강, 취업, 결혼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되었다. 2001년 3월 10일에는 사회복지법인 인천보육원이 사회복지법인 일현으로 변경되었다.²⁰⁾

5) 논산 에덴보육원



에덴보육원(1960년대)

논산(연무) 에덴 보육원은 1959년 10월 15일 노봉옥 장로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1963년 11월 12일 재단법인 에덴영아원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1964년 2월 14일 영아시설인 에덴영아

원이 설립되었고, 1973년 6월 30일 사회복지법인 에덴원으로 법인명칭과 정관(사업목적)을 변경하여 영아시설을 해체하고 육아시설인 에덴보육원 설립인가를 받았다. 1993년 2월 16일 사회복지법인 에덴원 정관을 변경하여, 동년 3월 12일 충남보육교사 교육원 설치인가를 받았고, 1998년 2월 2일 충남보육교사 교육원 부설 연무어린이집 설립 인가를 받았다. 1999년 10월 15일 에덴보육원 시설장이 노봉옥에서 노동익으로 바뀌었다. 2000년 3월 13일 연무경로식당을 설치하였다. 2001년 4

20) 사회복지법인 일현 인천보육원 및 관련기사(인터넷 홈페이지).

월 19일 정원을 68명에서 74명으로 변경 허가를 받았다.

에덴보육원은 충남 논산군 연무읍 동산리 880번지에 대지 3,946㎡(1,194평), 건물 연면적 1,925㎡(6개동 총582평)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입소 아동들에 대한 교육 및 생활 지도, 진학, 취업 상담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 활동 및 다양한 전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3개월마다 소식지 <꿈과 사랑이 숨 쉬는 에덴동산>을 펴내고 있다. 이외에 충남보육교사 교육원, 연무어린이집, 논산기초푸드뱅크, 연무경로식당을 꾸리고 있다.

에덴보육원은 원내에 자체건물인 연무 그리스도의 교회를 갖고 있고, 교회의 담임목회자를 통해서 원생들의 신앙지도에 힘쓰고 있다. 설립자 노봉옥 장로는 세광고등공민학교 및 순의도 여자(연무여자) 중학교를 설립하였고, 한국 크리스찬 밋손(재단법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유지재단)의 이사장을 역임하였으며, 2015년 7월 6일 향년 90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²¹⁾ 순의도 여자 중학교는 설립기금의 3분의 2를 지원한 미국 미시건 주립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정년퇴임한 로버트 스나이더(Robert M. Snyder) 박사의 성을 따서 '순의도'(스나이더)라 정하였다.

6) 대전 버지니아 보육원

버지니아 힐은 1968년 4월 22일 논산 에덴보육원으로부터 인수받은 15명의 고아들과 당진에서 온 두 명의 남자 아이들로 대전 크리스천 보육원(Taejon Christian Orphanage)을 개원하였다.²²⁾ 버지니아 힐(Virginia Hill)은 힐 요한 선교사의 딸로서 오자크기독교대학(Ozark Christian College)에서 기독교 교육학

21) 사회복지법인 에덴보육원 및 인터넷 관련기사(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 노봉옥 편저,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재단법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유지재단, 2006), pp. 103-106.

22) Christian Mission to South Korea, January-June 1968.



대전 버지니아 보육원(1960년대말)

을 전공한 후 한국 크리스찬 밋손의 선교사로서 1966년 8월 29일 입국하여 3년만인 1969년 5월 30일 귀국하였다. 보육원을 설립한 지 일 년 만에

원생이 23명으로 늘었다. 보육원은 세계보건기구 공무원인 엘리자베스 머미 세 들어 거주하던 선교센터의 1층에서 시작되어 로버트 스나이더 박사의 기금으로 한국성서신학교 교정에 건축된 단층 슬래브벽돌 건물에 입주하였다.

안식년을 가진 힐 선교사 내외와 함께 1969년 5월 30일 미국으로 돌아간 버지니아는 1971년 10월 7일 하비 벤두어(Harvey Bendure)와 결혼하여 세 명의 딸을 키우면서 한동안 대전 보육원의 후원금을 관리하는 현지 에이전트로 수고하였다.

버지니아의 후임으로 힐 가족을 대신해서 10개월 체류 예정으로 내한하여 1969년 9월 8일부터 업무를 수행한 부흥목사 조 가맨(Joe R. & Linda Garman)의 부인 린다가 수고하였고, 폴 코모(Paul Comeaux, 1969-70)가 그들을 도왔으며, 힐 요한 선교사 부부가 안식년을 끝내고 돌아와 1972년 은퇴할 때까지 그들을 이어서 관리하였다. 이후 김찬영 목사와 부인 패츨리샤(Patricia Kim, 1970-98)가 원장을 맡았고, 클라우디아 라자라쉬(Claudia Lazzereschi, 1974-78)가 내한하여 이들 부부를 도왔다. 1972년까지 남은 원생이 14명이었는데, 6명이 미국에 입양되었고, 4명(2남 2녀)은 가출하였으며, 나머지 4명(2남 2녀)은 김찬영 박사 부부가 입양하였다.²³⁾

23) Christian Mission to South Korea, 30 April 1969;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 pp. 12, 100-101.

7) 대구 배성보육원



대구 배성 보육원은 1952년에 설립되어 필요한 선교사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나 후속 이야기를 찾을 수 없어 폐쇄된 것으로 추정된다.

8) 부산 성광원



부산성광원(1960년대)

부산 성광원은 홍응수(홍경채) 여사에 의해서 1959년 3월에 설립되어 1960년 12월 7일 재단법인 성광원 설립허가를 취득하였고, 1961년 6

월 육아시설 성광원의 시설허가를 취득하였다. 1971년 11월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법인을 변경하였으며, 1972년 2월에 원사를 부산시 북구 금곡동 1192번지(대지 600평, 건평 200평)로 이전하였다. 성광원은 이 기간에 필요한 선교사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로버트 스나이더 박사가 성광원의 법인설립을 지원하였다.

이어 1988년 6월 사회복지법인 성광복지개발원으로 법인 명

칭을 변경하였고, 1989년 2월 사회복지법인 동서사회문화원으로 다시 법인 명칭을 변경하여 동년 3월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인가를 받았으며, 1989년 12월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아동 청소년관 부관을 준공하였다. 이로써 홍응수(홍경채) 여사는 1929년 경북 군위군에서 출생하여 6.25전쟁으로 가정을 잃은 고아들과 30년간 동고동락하다가 1992년 1월 11일 소천하였다.²⁴⁾

9) 서울 지온보육원



지온보육원(2010년경)

지온보육원은 최윤권 목사(서울기독교대학교 전 총장)에 의해서 1966년에 설립되었다. 최윤권 목사가 미국에서 귀국 후 결혼하

여 도원동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그 곳은 빈민동네라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도 많았고 버려진 아이들도 있었다. 교인들 가운데 정신장애를 가진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녀의 네 명의 자녀들을 집에 데려다가 돌본 것이 지온보육원의 첫 출발이었다. 1981년에 소천한 민지온 여사의 이름을 딴 지온보육원은 대한기독교신학교 캠퍼스에서 처음 시작되어 강서구 개화동 325-11번지에 건물을 지어 이전하였다.

지온보육원의 자리는 행주대교 근교로써 수풀이 많은 곳이라 그곳에서 수차례 교역자회와 청소년 캠프가 개최되었다. 설립이

24) 사회복지법인 인천(仁泉)사회사업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후 소천 때까지 민지온여사가 원장을 맡았고, 민 여사 소천 직 후 최윤권 목사가 원장을 맡았다가 현재는 박국자 여사가 원장을 맡고 있다. 부원장으로는 최윤모 장로, 총무로는 김병복 목사, 한호창 전도사, 한준희 목사, 김상영 목사, 이수영 목사 등이 수고 하였다. 1995년에는 사회복지법인 그리스도의 집이 설립되어 최윤권 목사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²⁵⁾

25) 최윤권, <내가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 p. 63.